

한국판 분노행동척도의 타당화 연구

조 현 춘 이 근 배[†]
경북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에 대한 연구다. 예비연구에서 설명력이 낮거나 요인 간 변별력이 낮은 6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31문항의 K-BARQ를 구성하였다. 새로 구성된 K-BARQ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K-BARQ를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Linden 등(2003)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사회적 지지 추구, 직접 분노표출, 반추, 자기표현, 분산, 회피 등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K-BARQ의 내적 합치도도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와의 상관분석에서도 K-BARQ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남녀간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사용하고 직접 분노표출은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K-BARQ가 다양한 분노표현을 측정해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행동척도, BARQ, K-BARQ, 분노, 분노표현, 반추

[†] 교신저자 : 이근배,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Tel : 011-518-4940, Email : sansimjung@hanmail.net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정서이며 분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정서도 찾기 힘들 것이다. 분노는 기본 정서 중의 하나이며(김용섭, 1984; 한덕웅, 전경구, 1995; Izard, 1977; Plutchik, 1980),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Averill, 1983). Kassinove와 Tsytsarev(1997)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들 중에서 일 주일에 한 번 분노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9%이었고 여러 번 분노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7%, 하루에 한 번 이상 분노를 경험한다고 응답이 사람이 11%로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 67%이었다. 분노의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35%),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27%), 모르는 사람(12%), 잘 알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10%) 등으로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잘 아는 사람이 72%이었다. 전경구(1999)의 연구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53.2%는 일 주일 동안에 한 두 번, 25.3%는 세 번에서 다섯 번 분노를 경험하였다. 분노의 대상은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37.6%), 잘 알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35.7%), 생소한 사람(19.1%) 등으로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잘 아는 사람이 73.3%이었다. 이처럼 분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경험하는 정서이다.

많은 연구에서 분노는 신체 혹은 정신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노는 심장질환 발생이나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Fredman & Booth-Kewley, 1987), 소화계나 통증과 같은 일반 신체증상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김교현, 전경구, 1997). 한 의학적 관점에서도 분노는 다른 정서들보다 신체건강이나 질병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다(한

덕웅, 2001),

분노의 개념화와 측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첫째, 많은 연구들에서 분노와 적대감과 공격성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분노와 적대감과 공격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노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노력한 점이다(김교현, 전경구, 1997). Smith(1992)는 분노와 적대감과 공격성을 각각 정서와 태도와 행동 성분으로 구분하였고, Martin, Watson과 Wan(2000)은 24개의 척도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노와 적대감과 공격성이 정서, 인지, 행동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구분을 잘 반영해 주는 측정도구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AQ, Buss & Perry, 1992)가 있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개발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행동적 차원에, 적대감은 인지적 차원에, 분노는 정서적 차원에 해당한다.

둘째,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의 구분 문제이다. 분노 관련 도구에 분노의 일반적 특성인 빈도나 강도, 지속시간, 대상 등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리적 혹은 신체적 반응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구분을 잘 반영해 주는 측정도구로 Novaco(1994)가 개발한 노바코 분노척도(Novaco Anger Scale; NAS)가 있다. NAS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각성 영역, 인지 영역, 행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성 영역은 분노반응의 강도, 지속시간, 신체적 긴장, 성마름 등으로 되어 있고, 인지 영역은 분노 유발 자극

단서에 대한 주의 초점, 의심, 반추, 적대적 태도 등으로 되어 있고, 행동 영역은 충동 반응, 언어적 공격,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둘째 영역은 2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노 유발 상황에서의 반응 경향성을 4점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남궁희승(1997)이 노바코 분노척도의 첫째 부분을 번안한 바가 있다.

분노와 신체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는 Spielberg,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것으로 분노경험척도와 분노표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 Spielberg(1997)가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개발했는데, 분노의 경험적 측면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하고, 분노의 표현적 측면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로 구분하고 있다. 상태분노는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성분노는 분노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반영하는 만성적이고 안정된 성격경향성을 말한다. 분노억제는 분노경험을 외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삭이려 하는 분노표현 양식이고, 분노표출은 분노경험을 언어적 혹은 신체적으로 외부로 직접 드러내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표현 양식을 말한다. 분노통제는 화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방략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분노표현이다. AQ, NAS, STAXI 등은 이론적 입장이나 심리측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도구로 평가받는 도구이지만(Eckhardt, Norlander, & Deffenbacher, 2004), 많은 연구들에서 분노표현에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노표현을 폭넓게 측정해 주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Linden, Hogan, Rutledge, Chawla, Lenz, & Leung, 2003; Miller et al., 1995; Riley & Treiber, 1989). 국내에서도 좋은 측정도구들이 번안되거나 개발되었지만, 분노표현을 폭넓게 측정해 주는 도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AQ는 공격성, 적대감, 분노 등으로 분노가 단일 차원으로 되어 있고, NAS는 분노표현이 공격성이나 적대감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STAXI-K는 분노만을 측정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분노표현을 분노억제/분노표출로 구분하여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분노표현을 폭넓게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 중에서 Linden 등(2003)은 분노표현을 더 잘 나타내 주고 측정해 주는 분노행동척도(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BARQ)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표현은 직접 분노표출(direct anger-out), 자기표현(Assertion), 사회적 지지추구(support-seeking), 분산(diffusion), 회피(avoidance), 반추(rumination)로 구분되는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하였다. 직접 분노표출은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분노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표현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지지추구는 친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하거나 지지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은 분노를 삭이기 위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고, 회피는 분노 사건을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반추는 분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분노를 외부로 직접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양상에서 볼 때, 직접 분노표출과 회피는 양극단에 놓이고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추구, 분산은 그 사이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표현은 직접 분노표출에 가장 가까이 있고 건설적

인 분노표출로 볼 수 있다(Linden et al., 2003). 이런 결과는 다양한 분노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BRAQ는 다른 측정도구에서는 보기 힘든 반추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 들어 분노 관련 연구에서 인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분노 유발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서수균, 2004; DiGiuseppe & Froh, 2002), 치환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에 관한 연구에서도 분노반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분노와 심혈관계질환의 관계에서 분노억제가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경순과 김교현(2000)은 분노억제가 감정 경험을 반복적으로 반추하게 하여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노표현을 폭넓게 측정해 주면서 중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추도 같이 다룰 수 있는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현춘과 이근배(2006)는 Lindon 등(2002)이 개발한 BARQ을 변안하여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나 요인계수가 낮거나 다른 요인구조를 보이는 문항이 여러 있었다. 즉, 문항 3번, 17번, 19번은 모든 요인에서 요인계수가 .30 이하로 나타났고, 7번, 11번, 23번은 요인들간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문항들이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서 그러할 수 있고(예를 들면, “음악 연주나 시 쓰기 혹은 그림 그리기로 감정을 표현한다.”, “화나는 사건을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는다.”), 어감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춘과 이근배(2006)가 변안한 BARQ을 수정 보완한 K-BARQ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먼저 이전연구에서 요인계수가 낮거나 다른 요인구조를 보인 문항들을 수정하여 그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으로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를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요인구조에 따라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에 더해 K-BARQ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노표현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척도(STAXI-K)와의 상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분노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하위척도에서의 남녀간 차이도 검토하였다.

방 법

참가자

대구 소재 00대학교, 충북 소재 00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분노행동척도와 특성-상태 분노표현 척도를 실시하였다. 대구 소재 00대학교에서는 심리학개론 5개 반에서 과목 담당교수의 양해와 학생들의 참여 동의를 받아 K-BARQ와 STAXI-K를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문항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학생들의 응답이 끝난 후에 검사의 목적을 설명해 주었다. 충북 소재 00대학교에서는 심리학 관련 수업 2개 반에서 실시하였는데, 수업 담당교수에게 실시 방식을 설명해 주고 수업시간에 실시하여 연구자에게 보내주

길 부탁하였다.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 3주 동안 이루어졌다.

이들 중 질문지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22부를 제외하고 최종 391부를 대상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남학생은 181명(46.3%)이었고, 여학생은 210명(53.7%)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19세에서 35세이었고, 평균 연령은 22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세 15명(3.8%), 20세 67명(17.1%), 21세 94명(24.0%), 22세 47명(12.0%), 23세 59명(15.1%), 24세 45명(11.5%), 25세 27명(6.9%), 26세 28명(7.2%), 27세 이상 9명(2.4%)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84명(21.5%), 2학년이 145명(37.1%), 3학년이 68명(17.4%), 4학년이 94명(24.0%)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

분노행동척도(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BARQ)는 Linden 등(2003)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절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각 문항의 행동을 자주 하는지’를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하위척도는 직접 분노표출(direct anger-out), 자기표현(Assertion), 사회적 지지 추구(support-seeking), 반추(rumination), 분산(diffusion), 회피(avoidance)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참여자 집단에서 나타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직접 분노표출 .85, 자기표현 .77, 사회적 지지 추구 .83, 반추 .75, 분산 .65, 회피 .73이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춘과 이근배(2006)가 변

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예비연구를 통해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살펴 본 후 최종적으로 구성된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를 사용하였다. 조현춘과 이근배(2006)의 연구에 따르면, BARQ 번안 판은 Linden 등(2003)과 비슷한 요인구조를 보였으나 요인계수가 .30 이하인 문항과 다른 요인구조를 보인 문항이 있었고 신뢰도가 다소 낮은 하위척도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요인계수가 낮거나 다른 요인구조를 보인 6문항을 다시 수정하여 대구 소재 00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240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전연구와 비슷하게 3번(음악 연구, 시 쓰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감정을 발산한다), 7번(화나는 이유를 마음속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번(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19번(화를 삭이기 위해 일기장이나 노트에 화나는 사건에 관해 적는다) 문항은 모든 요인에서 요인계수가 .30이하로 나타났다. 2번(상대방에게 화났다고 말한다), 11번(확 뒤집고 싶지만 참는다)은 다른 요인구조를 보였는데, 요인계수가 다소 낮고 문항 내용과 공통성을 고려해 볼 때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3번, 27번(사회적 지지 추구)은 적절한 요인계수를 보였지만 하위척도 자기표현에서도 .30 이상의 요인계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다른 분노척도 개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전경구 등, 1997), 아마도 문화적 규범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뢰도는 이전연구보다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런 예비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6문항(2번, 3번, 7번, 11번, 17번, 19번)을 제거하고 다른 요인과 다소 중첩되는 문항들(23번, 27번)은 약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31문항의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를 구성하였다. K-BARQ는 직접 분노표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추구, 반추, 분산, 회피 등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좌절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질문지에 적힌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Likert형 5점 평정척도(1: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version: STAXI-K)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것을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이다. STAXI-K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를 측정하는 문항과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AXI-K 중에서 특성분노(trait anger),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 control)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평정척도(1: 거의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는 특성분노 .82,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통제 .79이었다(전경구 등, 1997).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Linden 등(2003)이 제시한 BARQ의 요인구조가 한국판에서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ARQ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Linden 등(2003)과 조현춘과 이근배(2006)의 연구에서 6요인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6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Unweighted Least Squares를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회전 방식은 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각 하위척도별 및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 α 계수)를 살펴보고, 하위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STAXI-K와의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K-BARQ의 요인분석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 탐색을 해 본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의 수가 7개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들의 전체 설명 변량은 59.9%이었다. 스크리 검사(Scree plot)를

스크리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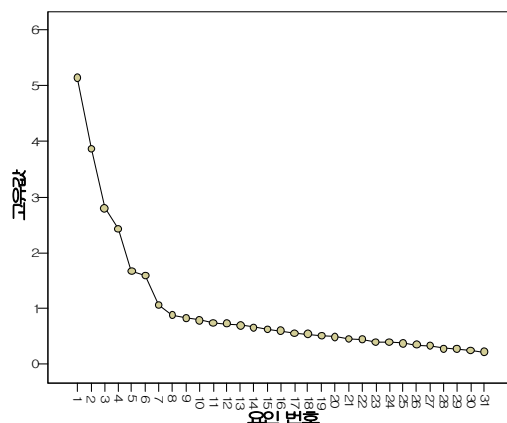


그림 1. 스크리 검사 결과

표 1.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의 요인계수 (N=391)

문항	요인						
	1. 사회적 지지 추구	2. 직접 표출	3. 반추	4. 자기 표현	5. 분산	6. 회피	공통성
7. 화나는 상황을 벗어나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말했을 때 나에게 동의해 줄 누군가(친구나 동료)를 찾는다.	.82	.04	.17	.10	-.02	.06	.72
17. 상황을 생각해 보다가, 나중에(예를 들면, 저녁에) 친구나 배우자에게 내 감정을 토로한다.	.74	.01	.11	.23	.12	.04	.62
21. 화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내 감정을 토로한다.	.73	-.01	.03	.25	.15	-.11	.64
11. 화나는 상황을 벗어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한다.	.72	.00	.11	.20	.14	-.01	.58
6. 화나는 상황에서는 화 안 난 척하다가, 나중에 친구나 가족에게 내 감정을 토로한다.	.50	-.04	.22	-.06	.05	.18	.34
27.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친구나 가족과 전화통화 하다가 내 감정을 말해 버리게 된다.	.48	.15	.32	-.02	.07	-.13	.38
10.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악담을 퍼붓는다.	.00	.74	.01	-.07	-.02	-.10	.56
9. 주먹을 움켜쥐거나 손가락 짓을 하는 등 강력한 몸짓을 한다.	-.07	.63	.12	-.01	.12	-.13	.45
18. 문을 팽 닫거나 책상을 치거나 하여 분노를 표현한다.	.05	.63	.12	-.02	.16	-.07	.44
14.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밀치거나 친다.	-.10	.62	-.05	.07	.08	-.16	.44
29. 화가 나면 언성을 높인다.	.16	.51	.24	.11	-.05	-.09	.37
3.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빈정거리거나 흠을 잡는다.	.11	.48	.15	-.07	-.09	.10	.28
26. 화나는 사건에 대한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5	.09	.84	-.02	.01	-.25	.80
31. 마음 속으로 화나는 사건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된다.	.25	.12	.72	-.01	-.01	-.11	.61
28. 화나는 사건은 오래 동안 나를 괴롭힌다.	.13	.05	.68	-.03	.13	-.15	.53
25.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16	.20	.57	.03	-.06	.13	.41
24.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한다.	.05	.41	.45	-.13	-.03	.14	.42
20. 일어난 사건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진정이 되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에게 말하려고 마음먹는다.	.14	.05	.08	.79	.11	-.07	.67
22. 화를 참으면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08	.02	-.04	.58	.12	.09	.36
16.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04	.31	-.13	.57	.07	-.24	.50
4.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다.	.18	.00	.00	.56	-.07	-.03	.35

표 1. 계속 (N=391)

문항	요인						공통성
	1. 사회적 지지 추구	2. 직접 표출	3. 반추	4. 자기 표현	5. 분산	6. 회피	
12. 화나는 상황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여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06	-.24	.03	.49	-.00	.14	.32
30. 화나는 상황을 벗어나서 화를 가라앉힌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09	-.12	-.14	.47	.21	.24	.36
23.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화나는 사건을 잊어버린다.	.05	.05	.05	-.03	.77	.28	.67
8. 화를 삭이기 위해 바쁘게 무언가를 한다.	.18	.05	-.01	.08	.60	.10	.41
15. 일이나 공부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다.	.06	-.02	-.00	.06	.60	.01	.37
19. 화를 삭이기 위해 집 청소나 사무실 청소 혹은 화단 손질을 한다.	.11	.05	.00	.06	.55	.02	.32
13. 화를 삭이기 위해 운동을 한다.	-.12	.24	.07	.21	.31	-.02	.22
2. 화나는 상황을 벗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 전체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06	-.07	-.06	.03	.07	.73	.54
5. 화나는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4	-.14	.00	.01	.16	.68	.51
1. 화나는 사건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자신을 확신시킨다.	-.06	-.09	-.17	.05	.09	.50	.30
고유치	5.14	3.87	2.80	2.43	1.67	1.60	
설명변량(%)	16.59	12.48	9.03	7.84	5.38	5.15	
누적변량(%)	16.59	29.08	38.11	45.95	51.33	56.47	

실시한 결과 7번째 요인부터 경사가 완만하게 나타났고, 6개 요인의 설명량과의 차이가 3.4% 정도로 설명량이 가중되어 있는 요인을 볼 때 7요인보다는 6요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럼 1에 스크리 검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전 요인분석 결과와 Linden 등(2003)과 조현춘과 이근배(2006)의 연구 결과에 따라 6요인을 추출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각 문항의 요인계수(factor loading)와 공통성(communality)을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요인 1(사회적 지지 추구)은 고유치가 5.14로 전체 변량의 16.59%를 설명

하고, 요인 2(직접 분노표출)는 고유치 3.87로 전체 변량의 12.48%를 설명하고, 요인 3(반추)은 고유치 2.80으로 전체 변량의 9.03%를 설명하고, 요인 4(자기표현)는 고유치 2.43으로 전체 변량의 7.84%를 설명하고, 요인 5(분산)는 고유치 1.67로 5.38%를 설명하며, 요인 6(회피)은 고유치 1.60으로 전체 변량의 5.15%를 설명하여 6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6.47%를 설명하였다. 이런 요인구조는 Linden 등(2003)과 조현춘과 이근배(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다. 각 요인에서 요인계수가 .30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볼 때, 문항 6, 7, 11, 17, 21, 27은 사회적 지지추구,

3, 9, 10, 14, 18, 29는 직접 분노표출, 24, 25, 26, 28, 31은 반추, 4, 12, 16, 20, 22, 30은 자기표현, 8, 13, 15, 19, 23은 분산, 1, 2, 5는 회피로 요약되었다. 문항 24번은 직접 분노표출과 반추에서 비슷한 요인계수를 보이거나 반추에서의 요인계수가 더 크고 문항의 내용을 볼 때 반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K-BARQ의 신뢰도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요인구조에 따라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추구, 직접 분노표출, 반추, 자기표현, 분산, 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4, .77, .81, .76, .70, .70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전체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K-BARQ의 기준 자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에 따른 K-BARQ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Linden 등(2003) 연구의 내적 합치도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사회적 지지 추구	.83	.84
직접 분노표출	.85	.77
반추	.75	.81
자기표현	.77	.76
분산	.65	.70
회피	.73	.70
전체	.76	.80

K-BARQ의 하위척도간 상관

K-BARQ의 하위척도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반추와 직접 분노표출($r = .36, p < .01$), 사회적 지지 추구($r = .35, p < .01$)간에 약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하위척도간 상관을 전반적으로 낮았다($-.20 \leq r \leq .27$). 이런 상관 경향은 Linden 등(2003)과 조현춘과 이근배(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 경향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것은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척도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하위10%	상위10%
사회적 지지 추구	391	18.97	5.29	6	30	12	26
직접 분노표출	391	13.30	4.42	6	30	8	19
반추	391	15.33	4.56	5	25	9	21
자기표현	391	16.97	4.46	7	28	11	23
분산	391	11.35	3.86	5	25	6	17
회피	391	8.98	2.64	3	15	5	12

표 4. K-BARQ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사회적 지지 추구	직접 분노표출	반추	자기표현	분산	회피
사회적 지지 추구	—					
직접 분노표출	.11	—				
반추	.35**	.36**	—			
자기표현	.27**	.03	-.05	—		
분산	.19**	.13**	.07	.21**	—	
회피	.02	-.20**	-.15**	.07	.19**	—

** $p < .01$

다른 측정도구와의 상관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K-BARQ의 직접 분노표출은 STAXI-K의 분노표출($r = .70, p < .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특성분노($r = .59, p < .01$)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통제($r = -.35, p < .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K-BARQ의 반추는 분노억제($r = .53,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성분노($r = .42, p < .01$)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른 상관들($-.21 \leq r \leq .34$)

표 5. K-BARQ의 하위척도와 STAXI-K의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특성 분노	분노 표출	분노 억제	분노 통제
사회적 지지 추구	.20**	.08	.23**	.02
직접 분노표출	.59**	.70**	.17**	-.35**
반추	.42**	.31**	.53**	-.14**
자기표현	-.01	.04	-.20**	-.18**
분산	.06	.06	.00	.13
회피	-.20**	-.21**	.06**	.34**

** $p < .01$

은 일관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K-BARQ의 하위척도가 다른 측정도구와 구별되는 측정도구이고 분노표현을 다양하게 측정해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반추와 분노억제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은 반추와 분노억제가 관련이 있고, 분노억제가 감정 경험을 반복적으로 반추하게 하여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경순, 김교현, 2000)과 일관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추와 특성분노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은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 상황을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Earle, Linden, & Weinberg, 1999)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K-BARQ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학생($M = 19.95$)은 남학생($M = 18.97$)보다 사회적 지지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6.22, p < .001$).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추구에 많이 의존하고 따라서 분노경험을 더 자주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남학생(M

표 6. 전체, 남학생, 여학생에서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N=391)	남학생(n=181)	여학생(n=210)	F
사회적 지지 추구	18.97(5.29)	17.83(5.49)	19.95(4.91)	16.22***
직접 분노표출	13.30(4.42)	14.06(4.62)	12.64(4.13)	10.17**
반추	15.33(4.56)	15.88(4.82)	14.86(4.27)	5.00
자기표현	16.97(4.46)	16.89(4.34)	17.05(4.57)	.12
분산	11.35(3.86)	11.51(3.82)	11.21(3.90)	.58
회피	8.98(2.64)	8.98(2.72)	8.98(2.58)	.00

주. ()안은 표준편차

** $p < .01$, *** $p < .001$

= 14.06)은 여학생($M = 12.64$)보다 직접 분노표출이 높게 나타났다($F = 10.17, p < .01$).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직접 분노표출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논 의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며 잘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 정서이다. 분노는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노표현을 다룰 수 있는 분노행동척도(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BARQ, Linden et al., 2003)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현준과 이근배(2006)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한 분노행동척도를 대학생 230명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는 향상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처럼 6문항이 요인계수가 너무 낮거나 다른 구조를 보여, 6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31문항의 K-BARQ를 구성하였다. 새로 구성된 K-BARQ를 대학생 391명에게 실시하여 그 요

인구조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Linden 등(2003)과 조현준과 이근배(2006)의 연구처럼 6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BARQ는 사회적 지지 추구(6문항), 직접 분노표출(6문항), 반추(5문항), 자기표현(6문항), 분산(5문항), 회피(3문항) 등의 요인구조를 보였다. 이 요인구조에 따라 K-BARQ의 신뢰도를 살펴 본 결과, 전체 내적 합치도는 .80, 사회적 지지 추구 .84, 직접 분노표출 .77, 반추 .81, 자기표현 .76, 분산 .70, 회피 .70 등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K-BARQ의 하위척도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반추와 직접 분노표출, 반추와 사회적 지지 추구간에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하위척도간 상관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와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K-BARQ의 직접 분노표출은 STAXI-K의 분노표출, 특성분노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K-BARQ의 반추는 분노억제, 특성분노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른 상관들은 일관되게 낮았다. 이런 결과들은 분노표현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로만 구분하

여 보는 것보다는 다차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K-BARQ는 분노표현을 폭넓게 측정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K-BARQ의 하위척도는 서로 다른 분노표현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분노를 외부로 직접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양상에서 볼 때, 직접 분노표출과 회피를 양극단으로 하면서 그 사이의 여러 분노표현 양식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노와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 반추 요인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복 사고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나 주관안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한덕웅, 박준호, 2003).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 상황을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보인다(Earle et al., 1999). 분노억제가 감정 경험을 반복적으로 반추하게 하여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경순, 김교현, 2000). Hogan과 Linden(2004)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가 높고 반추도 높은 경우에는 높은 혈압과 관련이 있었고 회피가 높으나 반추가 낮은 경우에는 낮은 혈압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반추와 분노억제, 반추와 특성분노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분노억제는 분노 반추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K-BARQ의 반추와 STAXI-K의 분노억제, 특성분노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볼 때, 분노표현과 신체건강이나 심리건강의 관계에서 분노반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에서 K-BARQ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추와 직접 분노표출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첫째, 분노를 밖으로 직접 표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분노표출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것인지에 대한 혼란 된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반추를 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Linden et al., 2003). 둘째, 반추는 과거 분노경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분노 자극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치환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에 관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Bushman et al., 2005).

사회 문화적으로 성별에 따라 수용되는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분노행동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Linden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분노경험을 더 자주 이야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직접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BARQ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Linde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집단도 포함시켰다. 이런 점을 볼 때 일반 성인집단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 K-BARQ는 심리 측정적으로 좋은 도구이고 분노표현을 다양하게 측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심리상담이나 치료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분노 문제를 다룰 때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로만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분노와 인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반추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만성적 분노반추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김교현, 전경구, 1997).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상담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노반추를 다루거나 조절하는 심리상담 중재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중재법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K-BARQ에 포함된 반추 요인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K-BARQ의 자기표현 요인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분노표현과 관련하여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자기표현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된다.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상담에서 자기표현의 변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중재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K-BARQ가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교현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181-192.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용섭 (1984).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12, 71-90.
- 남궁희승 (1997).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이경순, 김교현 (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60-72.
- 전경구 (1999). 분노에 관한 기초 연구. *재활심리연구*, 6(1), 173-190.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조현춘, 이근배 (2006). 분노행동질문지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예비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9(1), 41-51.
- 한덕웅 (2001). 한국의 전통의학 사상에서 정서와 신체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22.
- 한덕웅, 박준호 (2003).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분노경험이 주관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47-168.
- 한덕웅, 전경구 (1995). 퇴계 심학의 4단 7정론에 관한 정서 이론적 접근. *임능빈(편). 동양사상과 심리학*. 서울: 성원사.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DiGuseppe, R. & Froh, J. J. (2002). What cognitions predict state anger? *Journal of*

- Rational- 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0(2), 133-150.
- Earle, T. L., Linden, W., & Weinberg, J. (1999). Differential effects of harassment on cardiovascular and salivary cortisol stress reactivity and recovery in women and 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6(2), 125-141.
- Eckhardt, C., Norlander, B., & Deffenbacher, J. (2004). The assessment of anger and hostility: a critical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1), 17-43.
- Friedman, H., & Booth-Kewley, S. (1987).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783-792.
- Hogan, B. E., & Linden, W. L. (2004). Anger Response Styles and Blood Pressure: At least don't ruminate about it!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7(1), 38-49.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 Jorgensen, R. S., Johnson, B. T., Kolodziej, M. E., & Schreer, G. E. (1996). Elevated blood pressure and personalit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0(2), 293-320.
- Kassinove, H., Sukhodolsky, D. G., Tsytsarev, S. V., & Solovyova, S. (1997). Self-Reported anger episodes in Russia and America.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2), 301-324.
- Linden, W., Hogan, B. E., Rutledge, T., Chawla, A., Lenz J. W., & Leung, D. (2003). There is more to anger coping than "In" or "out". *Emotion*, 3(1), 12-29.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6), 869-897.
- Mathews, A., & Mackintosh, B. (1998). A cognitive model of selective processing in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6), 539-560.
- Miller, T. Q., Jenkins, C. D., Kaplan, G. A., & Salonen, J. T. (1995). Are all hostility scales alike? Factor structure and covariation among measures of hosti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1142-1168.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J. Steadman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pp. 21-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Riley, W. T., & Treiber, F. A. (1989). The validity of multidimensional self-report anger and hostility measur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3), 397-404.
- Smith, T. W. (1992).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11, 139-150.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원 고 접 수 일 : 2006. 12. 4

수정원고접수일 : 2007. 4. 5

게 재 결 정 일 : 2007. 5. 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Hyun-Chun Cho

Geun-Bae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K-BARQ). The final version of the K-BARQ consisted of 31 items that were selected from the original pool of 37 BARQ items, leaving out 6 items with low factor loadings. The K-BARQ was administered to 391 college students. Factor analysis of the K-BARQ yielded the following six factors: Support-Seeking, Direct Anger-Out, Rumination, Assertion, Diffusion, and Avoidanc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BARQ was acceptable. Correlations with STAXI-K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K-BARQ. Women reported more use of Support-Seeking and less use of Direct Anger-Out than m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BARQ is factorially valid and has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BARQ, K-BARQ, anger, anger expression, rumination